

제초제 잘 사용하면 잡초발생 크게 줄여

잡초 종류 따라 입제형 및 경엽처리형 제초제로 방제 가능



이제 곧 한식(寒食)이다. 우리나라 명절 중 하나인 한식은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되며, 민간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거나, 낡은 산소에는 사초(莎草)를 하여 새롭게 꾸미는 등 묘지를 돌보게 된다.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벌초(伐草)라고 하여 추석 성묘전인 8월에 풀을 깎아 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최근에는 산소에 더 많은 잡초가 발생하여 일년만 벌초를 하지 않으면 버려진 산소처럼 되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렇게 최근 묘지에 잡초가 많아지는 원인을 보면 7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농촌에서는 산야초(山野草)를 깎아 말려서 똥감으로 하거나, 주변의 풀을 베어다가 퇴비(堆肥)를 만들어 비료대신 농사에 사용했다. 또 농가마다 가축의 사료로 잡초를 이용하는 등 주변의 여건이 잡초들이 종자를 결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묘지주변의 산야초들이 쓸모가 없어 그대로 방치하면서 많은 종자를 맺게 되어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묘지에서 잡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피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묘지 잡초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제 시대의 흐름



오 세 문
농업과학기술원 잡초관리과장

에 따라야 할 것이다. 묘지 잡초방제를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제초제의 종류는 매우 많다.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양처리형 제초제와 잡초 생육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경엽(줄기와 잎)처리형 제초제가 있다. 묘지에서 제초제 사용 시기는 설(구정)날 성묘부

터 3월 중·하순 잡초가 나오기 전까지 입제형의 제초제를 뿌려주면 대부분의 일년생 잡초를 손쉽게 방제할 수 있다. 썩, 크로바, 민들레, 썸바거와 같은 다년생 잡초의 발생이 많은 묘지에서는 경엽(줄기, 잎) 처리형 제초제를 4월 중순~5월 중순(잡초 생육 3~5엽기)에 뿌려주면 이들 잡초를 방제할 수 있다. 경엽 처리형 제초제에는 모든 식물을 다 죽이는 비선택성 제초제와 광엽(넓은 잎)잡초만 골라서 죽이는 선택성 제초제가 있는데, 묘지에서는 광엽 잡초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선택성 제초제를 뿌려주어야 한다. 또 잔디와 같은 화본과(禾本科;벼과) 잡초 띠, 억새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선택성이면서 이행형(移行刑)의 제초제(근사미)를 수건이나 목장갑 등에 묻혀서 이들 잡초 잎에 발라주면 잔디에 피해 없이 방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초제는 화학물질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Y